

【紀行】

印度洋 周邊國家의 엔지니어링 會議 參加
 【1997年 5月 1日~2日 於 perth. Aust】
 Engineering Opportunities on the Indian Ocean Rim

許 墳*
 G. Huh

1. 서 언

이번 會議은 濠洲 工學 聯合會(1E Aust) 主
 管 西部支會(WAO) 主催로 開催된 技術士 專門
 委員會 모임이다.

【註：濠洲의 技術士 制度】

認定된 大學卒業者가 工學 聯合會(1E Aust)에 平
 會員으로 加入后 4年間の 實務經歷을 가지면 所定의
 節次에 따라 平會員(Coporative member)이 되어
 또다시 4~5年의 經歷을 쌓게되면 다음은 先任會員
 (Senior member)이 되며 그로부터 10年이 지나면
 最高峰인 參與會員(Fellow)이 되는 것이다.

技術士(Professional Engineer)의 資格을 얻고자
 하면 먼저 平會員의 會員이라야 可能하다. 1차적으로
 論文審査를 거친 다음 筆記, 口頭에 合格하면 工學聯
 合會가 國家를 代身해서 資格證을 주게된다. 따라서
 工學聯合會 會長 名稱도 National President로 名
 札에 標記하는 것이 특이 한 것이다.

4月 30日 前夜祭인 歡迎 party는 6:30부터
 開催하여 우리 一行이 到着했을 때는 200余名의
 各國代表들이 盛況을 이루고 있을 때였다.

우리나라에 對해서는 格別한 禮遇를 갖추어
 主催者 側에서 일일이 各代表들에게 인사 紹介

함과 同時에 13名이나 되는 多數會員이 參席한
 데 對해서 아주 고맙다는 人事를 몇번이고 되풀
 이 하였다. 元來 筆者外 2名 卽 3名만이 會議에
 登錄하고 나머지 10名은 産業視察을 豫定했으나
 主催側에서는 歡迎會만은 全員參席해 달라는 뜻
 에따라 全員參席했으나 言語 장벽은 어찌할 수
 없이 若干名이 미리 빠져나와 若干의 缺禮를 한
 셈이 되었다.

【5月 1日 9:00】

初等學校 合唱團의 노래소리와 함께
 西部洲(Western Aust) R.court 首相의 開
 會辭를 선두로 2日間の 會議는 各國의 基調演說
 (Key note speaker)부터 始作되었다.

南阿共和國 A. Erwin 通商長官 『The South
 African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lan』 Commonwealth, 工學理事會 L. Y
 Cheong. 議長 『The Professional Engineer,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Bor-
 derless Gloval Economy of The 21st Century』

Malaysia S.R. Aziz 通商長官 『The Next
 Five Years of development in malaysia』
 印度 Trireni Group D.M Sowhney 會長
 『Opportanities in The Largest market in
 Indian Ocean Rim』

濠洲西部洲 B. sutherland 通商部長 Infra-

* 우리學會 會長

structure. development, Funding Jervoise Bay, W. A casestudy Saudi Arabia 技術委員會 U.AI-kurdi 總長 『Resources & Infrastructure Saudi Arabia.』 Indonesia pt Tri patra Group P. prabono 會長 『Engineering Opportunities Indonesia』

以上 各國政府間的 通商政策이 發表되자 이에 따르는 具體的인 方案提示와 이에 關聯된 Engineering 問題에 對한 project work shops을 나라別로 別室에서 오후 4:00~5:30까지 가진바 있다. 이와 別途로 濠洲工學聯合會(1E Aust)에서는 따로히 總會를 열고 新任會長에 MR Barry Grear('97/98)을 選出했다.

會議進行은 1:30時마다 Coffee Break를 두고 때로는 One man show로서 한바탕의 웃음으로 그간의 stress를 없애는데 지루함을 없애는 짜임새 있는 모임이었다.

저녁 7:30부터 歡迎 晚餐이 始作되었는데 앞서 그간 濠洲 工學聯合會에 功勞가 많은 外國代表 몇분에게 medal 증정이 있었다.

첫날 行事를 마치고 11:00에 헤어졌다.

【5月 2日 8:45時】

濠洲 副首相兼 國民黨首 T.Fisher
通商長官의 基調演說

『Indian Ocean Trade & Investment : An Australian perspective』이 끝나자 각기 나라別 別室로 가서 濠洲를 비롯한 印度洋 周邊國家 Indonesia, Malaysia, 印度, Parkistan, SaudiArabia, UAE, 南阿共和國, Zimbabwe等에 대한 技資 및 Engineering 輸出說明會를 濠洲海外公館, 通商擔當官 및 技術擔當官이 나와서 미리 準備된 資料와 함께 具體的 說明을 하고 質問에도 應해주는 實務的인 時間을 가졌다.

年後 2時부터는 發表會가 계속되었는데

BHP Engineering Group G. Knox Engineering 首席 『Managing major International Projects 있었고 : A whole of Asset life approach.』 University of Western J. Imberger 교수의 『Australia

Enviroment Engineering : Designing for Sustain able development』

濠洲西部州(Western Aust) H. Cowan 副首相兼, 通商部長官 『Australia Indian Ocean strategy』

本 會議 P.Knight 議長

『Acknowledgements and Introduction to Professional showcase』

모든 會議進行은 年後 5時에 끝나치고 이어 歡迎 party가 들어갔다. B.Grear會長の 歡迎辭를 끝으로 筆者와는 Golden Room에 마련된 韓國技術會와 濠洲工學聯合會 間的 協定書 調印에 들어갔다.

그간 많은 國際會議를 다녀 보았지만 그 어느때 보다도 훌륭하게 치러진 것을 보고 느낀 바 있다.

이번 會議는 2日間에 不過하지만 아침 朝食부터 會議進行에서 夕食에 이르기까지 단 1分까지도 짜임새 있게 그리고 그 大部分의 自願奉仕者로서 秩序정연하게 進行 되었다.

방마다의 壁에는 各 Engineering 會社의 廣告 poster가 걸려 있고 그 밑에는 Catalogue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配置되어 있고 發表文 內容은 油印別로 Vedeo Carset로 해서 有料로 팔고 있으며 參加者들의 活動場面の photo는 그때그때 나와서 싼값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便宜를 提供해 주고 있었다.

이번 會議의 參加者들은 各國의 技術士會 및 工學聯合會技術士委員會에 속해 있는 技術士들로서 지난 '85年 우리나라가 主催했던 第4次 東南亞太平洋地域 工學聯合會 總會(FEISEAP)에서 만났던 各國의 技術士들로 2年마다 再會하는 親近감으로 새로운 資料交換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特히 濠洲工學聯合會 Barry Grear 會長은 明年에는 濠洲代表團을 이끌고 韓國을 訪問하겠다고 約束한 바 있다.

會議가 끝난다음 다음날 부터는 몇가지 産業 視察旅程이었으나 우리 一行은 大部分이 이곳 初行길이고 해서 首都인 Canberra를 비롯한 Cydeny, Brisbane 등 觀光을 하기 爲해서 6日間の 旅程에 올랐다.